

# SPORTS ‘골프 지존’ 신지애, JLPGA 통산 상금 1위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영광 출신 프로골퍼 신지애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통산 상금왕이라는 새 역사를 작성했다.

신지애는 9일 일본 오키나와현 류큐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JLPGA 투어 시즌 개막전 다이킨 오키다 레이디스 골프토너먼트(총상금 1억2000만엔)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최종 합계 6언더파 282타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신지애는 지난해까지 299개 대회에 출전해 13억7202만3045엔의 상금을 올렸다. 300번째 출전 경기인 이번 대회에서 준우승 상금 872만엔을 받은 신지애는 통산 상금 13억8074만3405엔을 기록, 후도 유리(113억7262만382엔·일본)를 제치고 JLPGA 통산 상금왕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후도 유리와의 차이는 불과 59만6978엔이었다.

후도 유리는 통산 495개 대회에 출전해 50승을 거둔 일본 골프의 레전드다. 그는 JLPGA 투어 영구 시드를 지녀 대회 출전은 계속하고 있지만, 컷 통과조차 버거워 그동안 상금을 거의 보태지 못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공동 83위(오오바)로 컷을 통과하지 못했다.

## 시즌 개막전서 6언더파 준우승...상금 872만엔 수확 누적 13억8074만3405엔...후도 유리 제치고 최고액

지난해 파리 올림픽 출전권 획득을 위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일정에 많이 출전한 신지애는 올해 JLPGA 투어에 전념할 계획이어서 JLPGA 투어 통산 상금 1위는 당분간 독주할 전망이다.

JLPGA 투어 통산 상금 3위는 586경기에서 13억1983만엔을 쌓은 전미경, 4위는 610경기에서 12억5661만엔을 벌어들인 이지희, 5위는 255개 대회에 11억엔을 번 안선주다. 이들은 최근 거의 대회에 나서지 않는다.

올해부터 LPGA 투어에서 진출한 이와이는 이날 6언더파 66타를 쳐 합계 10언더파 278타로 우승, 작년 이어 2년 연속 우승했다. 그 결과 이와이는 JLPGA 투어 통산 8번째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지난해 혼다 LPGA 아일랜드에서 우승했던 이와이 치사토의 쌍둥이 언니 이와이 아키에는 공동 7위(3언더파 285타)에 올랐다.

한편 지난 2006년 프로에 입문한 신지애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20승을 달성하며 한국 무대를 평정한 레전드다. 2008년엔 세계 4대 투어인 LPGA·JLPGA·KLPGA·유러피언골프(LET) 대회에서 한해에 모두 우승을 달성한 최초의 골퍼로 기록됐다.

이어 2009년 미국에 진출한 신지애는 LPGA 투어에서도 메이저 대회 2승을 포함해 통산 11승을 획득했다. 2010년에는 한국 선수 최초로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2014년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무대를 노크한 이후에는 현재까지 28승을 기록, LET 투어 3승과 호주·아시아·대만여자프로골프 투어 등에서 우승을 추가하며 프로통산 65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국내 남녀 선수를 통틀어 가장 많은 우승 횟수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신지애가 9일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통산 상금 1위에 올랐다. 신지애는 이날 일본 오키나와현 류큐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JLPGA 투어 시즌 개막전 다이킨 오키다 레이디스 골프토너먼트(총상금 1억2000만엔)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최종 합계 6언더파 282타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한민

## “전문·생활체육 조화...핸드볼 대중화 이뤄낼 것”

### 여명현 광주시핸드볼협회장 취임 150여명 참석...“위상 높여겠다”

여명현 제4대 광주시핸드볼협회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광주시핸드볼협회는 지난 7일 광주북구 까사디루체 웨딩컨벤션 연회장서 유석우 제3대 회장과 여명현 제4대 회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박종규 부회장, 김영삼 사무처장, 박세준 대한스쿼시협회장, 김필모 광주시교육청 체육예술인성교육과장 등을 포함해 광주 핸드볼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여명현 신임회장은 지난 1월 20일 치러진 제4대 광주시핸드볼협회장 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임원 직격 심사 결과 당선인으로 결정돼 이날 취임했다.

여 신임회장은 지난달 7일 열린 경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인준을 받아 회장직을 시작했고, 2029년 2월 경기대의원총회일까지 4년간 광주핸드볼협회를 이끈다.

여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바꾸려는 변화가 아닌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과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지켜려는 변화’를 추구하겠다”면서 “광주핸드볼이 걸어온 길을 존중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핸드볼을 즐길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여명현 광주시핸드볼협회 신임회장과 유석우 전 회장이 지난 7일 광주 북구 까사디루체 웨딩컨벤션 연회장서 열린 이·취임식에서 광주 핸드볼 관계자들과 핸드볼 활성화를 다짐하고 있다.

이와 “핸드볼 대중화는 우리 모두의 목표다. 생활체육과 엘리트 스포츠가 조화를 이루고, 경쟁력을 높여 지역 사회에서 핸드볼 위상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 신임회장은 이날 농성초, 효동초, 조대부중, 조대여중, 조대부고, 조대여고, 조선대, 광주도시공사, 광주다움스포츠클럽 등 핸드볼 육성학교 및 스포츠클럽에 각각 50만원씩 후원비를 지급했다.

지난 2017년 제2대 회장에 당선된 뒤 2021년엔 제3대 회장으로 연임에 성공하며 8년간 광주시핸드볼협회를 이끌어 온 유석우 회장은 임기를 마치고 이날 이임했다. 유 회장은 이날 선

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유 회장은 “8년 재임 동안 경기장에서 선수들과 함께한 시간이 가장 힐링하는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대한핸드볼협회 부회장이로서 더욱 지근거리에서 함께 하겠다. 광주핸드볼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록스LED 대표인 여 신임회장은 지난 8년간 광주핸드볼협회 이사로 활동하며 핸드볼 발전에 앞장서왔다. 그는 광주 무등JC 회장을 역임하는 등 사회봉사 분야에서도 남다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KIA, 시범경기 개막 2연전 ‘1무 1패’

원정 2차전서 0-0 무승부...평평한 투수전 펼쳐

올 시즌 2연패에 도전하는 KIA타이거즈가 2024 KBO리그 시범경기 개막 2연전을 1무 1패로 마감했다.

KIA는 9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시범경기에서 롯데자이언츠와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양 팀은 이날 극한의 투수전을 펼쳤고, 타자들은 서로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전날 롯데를 상대로 3-4 패배를 당했던 KIA는 이로써 시범경기 개막 2연전을 1무 1패로 마무리했다.

KIA는 이날 타순을 박찬호(유격수)-김선빈(2루수)-김도영(3루수)-나성범(우익수)-위즈덤(1루수)-최형우(지명타자)-이우성(좌익수)-김태균(포수)-최원준(중견수)으로 짰다.

선발 투수로는 윤영철이 나섰다. 총 48개의 공

을 던진 윤영철은 3이닝 2피안타 1볼넷 1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윤영철은 경기 초반 좋은 흐름을 보였다. 1회말 상대 선두타자를 뜬공으로 잡아냈다. 후속타자는 2루수 땅볼과 뜬공으로 처리하며 무실점으로 이닝을 막아냈다.

2회말에는 상대 레이이스 땅볼 이후 후속타자에게 볼넷을 내줬다. 하지만 곧바로 상대 유강남과 정준을 각각 삼진과 뜬공으로 돌려세웠다. 3회말 역시 안타 2개를 내줬으나 뜬공 3개로 실점 없이 아웃카운트를 모두 채웠다.

KIA는 4회말 황동하를 마운드에 올렸다. 황동하는 상대 선두타자에게 안타를 내준 뒤 후속타자에게 땅볼을 유도, 병살타를 만들었다. 이어 상대 정준을 땅볼로 잡아냈다. 5회말에는 2사 이후 안타와 볼넷을 내주며 위기를 맞았지만, 상대 손호영에게 삼진을 잡아내면서 이닝을 종료했다.

6회말에는 김대우가 마운드에 올랐다. 김대우는 연속 땅볼로 아웃카운트 2개를 빠르게 올렸다. 이후 볼넷을 내주며 정재혁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장재혁 역시 등판 직후 볼넷을 내줬으나 삼진으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이준영은 7회말에 등판해 삼자범퇴 이닝을 만들었고, 8회말을 맡은 전상현 또한 무실점에 성공했다.

KIA는 9회말 ‘글로저’ 정해영을 출격시켰다. 정해영은 상대 선두타자 볼넷 이후 후속타자에게 희생번트를 허용했다. 1사 2루 상황, 정해영은 두 타자를 연속 범타로 처리하면서 경기는 0-0으로 끝이 났다.

한편 KIA와 롯데의 시범경기에서는 이틀 연속 구름 관중이 몰렸다. 이날 시범경기를 앞두고 롯데는 1만7890명의 입장권을 모두 판매했다. 전날 경기에는 1만7352명의 관중이 입장했다.

지난 시즌 1088만7705명의 관중을 모아 1982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1000만 관중을 돌파한 프로야구는 올 시즌에도 심상치 않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시범경기 개막전이 열린 8일 전국 5개 구장엔 총 6만7264명의 관중이 입장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윤영철

## 전남도체육회 ‘제64회 도체육대회’ 준비 본격화

23개 종목 7136명 참가 신청

장성군서 내달 18~21일 개최

전남도체육회가 ‘제64회 전남도체육대회’의 시·군별 참가 신청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체전 준비에 돌입했다.

9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6일 마무리된 도체육대회 참가 신청 결과, 22개 시·군에서 23개 종목에 7136명의 선수단이 각 시·군의 명예를 걸고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광양시와 진도군이 23개 전 종목에 398명이 출전, 가장 많은 선수단이 이름을 올렸다. 이어 목포시를 비롯한 12개 시·군이 전 종목에 출전하면서 경기력 향상 등 마지막 담금질을 진행 중이다.

도체육대회 64년 역사상 처음으로 장성군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다양한 변화가 이뤄졌다. 가장 큰 변화는 참가자격 변경이다.

상위 입상을 위한 무분별한 타지역 선수 영입을 방지하고자 거주지 참가자격을 기존 도내 13개월, 타 시·도 2년에서 도내 25개월, 타 시·도 4년으로



‘제64회 전남도체육대회’가 시·군별 참가 신청을 마감, 본격적인 체전 준비에 돌입한다.

강화했다. 사전열람자격 또한 시·군체육회에서 도체육회까지 포함시켜 무자격·부적격 선수를 사전에 차단했고, 대학선수의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필수화했다.

여기에 지난 2월 26일 개최된 전남도체육회 제58차 이사회에서 즉구 종목이 시범종목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상위

입상 목표를 위해 더욱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한편 제64회 전남도체육대회는 오는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장성군 일원에서 ‘꿈을 안고 장성으로, 전남을 품고 세계로’의 슬로건 아래 시·군의 명예를 걸고 열린 종합특집 경연을 펼칠 전망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KIA 이창진, 부상으로 시범경기 이탈

왼쪽 햄스트링 염좌...“회복에 집중”

KIA타이거즈 외야수 이창진이 왼쪽 햄스트링 염좌로 시범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9일 KIA에 따르면 이창진은 일본 오키나와 스포프링캠프 기간 왼쪽 햄스트링 통증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2일 복귀 후 국내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염좌 소견을 받았다.

이창진은 당분간 회복과 재활에 집중할 계획이

다. 정확한 복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창진은 지난해 103경기에 출장해 191타수 50안타 1홈런 18타점 타율 0.262를 기록하며 팀의 통합우승에 기여했다.

KIA 관계자는 “부상은 심하지 않다. 이번 주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휴식을 취한 뒤 다음 주부터 재활을 시작할 예정이다”며 “2군 경기를 뛰고 몸상태가 잘 만들어지면 1군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